

신 앙 Part1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교오또교구장 바오로 오오츠카 요시나오

1. 참신앙으로 소명에 응답하다.

교오또교구는 2009 년을 「소명촉진원년」으로 정하고, 2 년에 걸쳐서 「소명」에 대하여 생각하고, 더불어서 교오또교구에 주어진 소명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그 동안, 소명이라는 것은 현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토대이며, 인간은 신앙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앙은 「참신앙」이어야 합니다. 이 「참신앙」에 의해서 부여된 소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신앙」을 테마로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는 「신앙」을 근거로 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것은 신앙인 자신의 복음화의 원점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꼼꼼히 생각하여 반성하여, 우리들의 회심과 신앙의 성숙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여러분은 하느님의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하느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나눔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의 존재를 믿는다는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에 자신을 맡기는 능동적인 응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찬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아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하느님께 자신의 존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주의나 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고 가슴으로부터 부르는 것이 가능한 하느님을 믿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영원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으로 부터 생겨납니다.

3. 여러분은 언제나 하느님으로부터의 초대를 느끼고 있습니까?

구도자에게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하느님께 귀의하는 어떠한 신앙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인인 우리들의 신앙의 등불은 점멸하여 꺼져가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때, 나의 내부에서 움직이는 「영적인 감각」에 의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신앙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깨닫는 영을 내려주시고, 하느님을 깊이 아는 것이 가능하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에페 1, 17-18). 하느님은 인간의 외부와 내부라는 두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여 작용하십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스라엘을 초대하시고,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파견하시어 계시를 완성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어 계승하는 교회의 중개로,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 인도되어 집니다. 다시말해서, 하느님은 역사 안에서, 인간의 중개와 이미 일어난 일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의지를 밝히십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인도 이외에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작용하시어, 당신과의 대화에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하느님의 초대를 언제나 주의깊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4.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고 계십니까?

신앙에 대해서 인간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고, 그 것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언어와 상징을 수단으로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상징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하느님에게 귀속되어 있는 신앙인이 의지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 힘, 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느님입니다. 그 보증은 하느님의 성실함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는 한사람 한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바오로는 디모테오 후서에서 「저는, 제가 신뢰하고 있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2 디모 1, 12)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1 회한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과정(프로세스)를 밟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추구하고 갈망하는 인간의 마음에는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는 분이로서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하느님과의 사랑이라는 인격적인 연결됨을 기초로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활동을 신앙에 있어서 「마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5. 여러분의 신앙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 과연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얼마나 의식되고 있습니까? 미사중에 드리는 봉헌문의 마무리 기도문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의 3 개의 관점으로 생각해봅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일찌기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느님과 똑같이신 그분이 하느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

1,18) .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의 상징을 통하여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느님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들은 그리스도 「를」 믿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신앙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신」 말씀으로서, 성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중개자」 이시며, 우리들의 신앙의 「모범」 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 (히브 12,2) 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서는 사랑으로, 사랑 그 자체이신 성부에게 응하여, 성부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생각, 가치관, 그 인격 깊이 감추어진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들의 약함을 떠안아 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를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행위는, 틀림없이 개인의 주체적인 행위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무한히 넘어선 성령에 의해서 실행가능한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1 코린 12,3) .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무한하신 존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신 하느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 2,20) .

6. 여러분의 신앙은 미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성사는 신앙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성사는 신앙을 키우고, 강하게 하며, 드러내는 것으로 「신앙의 성사」라고 일컬어집니다 (「전례헌장」 59) . 특히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감사의 예배인 미사는 신앙생활의 원천이자 정점입니다. 성사는, 하느님의 은총이 자동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 자체이자, 집전자와 참가자가 함께 거행하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주일미사는 구성원 모두가 적절한 준비를 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을 담아서 참여하는 살아있는 전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미사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은총의 「보이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미사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미사를 중심으로 얼마나 바르게, 열의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7. 여러분의 신앙은 생활에 반영되고 있습니까?

신앙과 생활의 괴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인간이 하느님을 안다는 것은, 신앙을 생활에 적용하는 실천적 지혜가 부여된다는 것이며, 그 지혜를 일상의 행동에서 드러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신앙은 단지 우리들의 내부에 감추어진 확신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기주의에 맞서 이웃들에게 자신을 열어서 모든 사람을 형제로서 사랑하는 실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힘입니다. 다만, 신앙을 생활에 적용해야 한다고 하는 말은, 규칙이나 법칙을 지키면 이익을 받게된다는 것도 아니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이나,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생각같이 소극적인 도덕주의로서의 사랑의 규칙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요즘, 일본의 교회는 외국국적의 신자들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과 라틴아메리카와 같이 가톨릭 신앙이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나라에서 온 신자들과 접촉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 일본의 신자들은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기도하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달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생활에서 하느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몸에 익은 신앙」을 우리들은 더욱 배워야만 합니다.

8. 여러분은 하느님께로 부터 오는 평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 (마르 4, 40) . 인생에 있어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불안을 모두 없애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겸허하게 그 것을 받아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자세를 가르칩니다. 하느님을 믿는 우리들도 물론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많은 의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정확한 좌표축과 같은 것을 받아, 인생의 모든 사건을 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불안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치유된 사람들에게 「너의 신앙이 너를 구했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9,22; 마르 5,34; 루카 7,50) . 신앙에 있어서 구원의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 (shalom) 의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과연, 우리들은 자신의 주변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자신에게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느님의 섭리를 믿고,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서 「신앙의 시련」의 앞에 놓여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9.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인생스토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바위위에 자신의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마태 7, 24). 그렇기때문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들은 신앙에 의해서 자신의 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으며, 세계의 역사 안에 놓여진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에 빛을 밝혀주어, 우리가 하느님으로 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가톨릭교회에 소속되어 가톨릭교리 혹은 가치관에 사로잡혀, 발을 땅에 대지 않고 걷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각자가 한번뿐인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되는 「해방과 자유」 라는 구원의

경험을 통하여 과거의 자신을 현재에 연결시켜서 인생을 의미있는 스토리로 엮어줍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께서서는 나의 인생이라는 모노가타리(인생스토리) 속에 당신을 등장인물로서 나타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앙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타인을 위해 살아가고, 사회를 복음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해줍니다. 또한 그리스도 신앙은 살아가는 희망의 근원이 이 세상을 초월한 어떠한 존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곤란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악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여 살아갈 힘을 얻게되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은, 죽음을 바라볼 때조차도 낙심하는 일이 없이, 사랑과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계십니까?

10. 여러분의 신앙은 독선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자기 중심의 자기만족과 독선적인 위안을 추구하기 위한, 하느님께 매달리는 신앙이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신앙생활과 각자의 신앙의 표현방법의 사이에는 간격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뿐이지만, 그 신앙의 표현방법은 시대나 문화에 의해서, 혹은 인간의 개성에 의해서도 다양해집니다. 그러나 각각의 표현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검증을 받아야 하는 필요가 있으며 그 것에 의해서 신앙은 정화되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은, 때때로 잘못된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선의에 의해서 시작된 어떠한 신심이 미신의 형태를 띠기도 하며, 광신적인 형태를 띠기도 했던 사례를 교회의 역사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교회의 교도직」과 「신자전체의 신앙감각」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됩니다 (「교회현장」 12). 지난 2009 년의 사목교서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소명에 있어서는 「하느님을 따르는 충실함」이 없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을 따르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따르고 맙니다. 바로 이 점이 인간의 약함, 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표현은 이대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복음적 식별을 해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11. 여러분은 신앙을 친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단지 혼자서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우리들은 하나인 교회의 신앙고백에 목소리를 모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함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혼자서 신앙을 갖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함께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사귀는 것(코이노니아)이 신앙공동체의 원형이며, 원천입니다. 하느님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연결이 신앙공동체의 교체를 생겨나게 하며, 이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이 더욱 더 강건해지고 깊어집니다. 자신의 신앙의 내용과 태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른 신앙인의 신앙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미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공동체는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께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 의욕적으로 「만들어 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앙을 친구라고 생각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12. 여러분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섬기는 것입니까?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페 4,13) .

우리 교오또교구의 공동선교사목지구의 구성과 활동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장을 위한 것인 동시에, 교회를 살아가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에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헌장」 8) 입니다. 본당의 사목회나 부서활동은 공동체양성을 위해서 유효한 것이지만, 말씀이라는 빵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아니라면 공허한 것입니다. 신자 여러분을 단지, 교회의 유지관리의 틀에 붙들어매는 것은 결코 주교인 저의 뜻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섬기는 공동체가 항상 조직보다 우선입니다. 결단코 공동체의 신앙양성과 새로운 조직구성을 혼동해서는 안되겠습니다.

13. 신앙을 살아가는 용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으셨으니 정녕 복되십니다」 (루가 1, 45). 우리들은 성모님과 같은 신앙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시대에서나 용기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현대인은 우선 살아가는 것 자체에 용기가 필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신앙을 갖고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더욱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용기라는 은총으로서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앙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은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목교서를 통해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많은 측면과 의미를 모두 가르쳐드릴 수는 없습니다. 올 해의 사목교서는 각자의 신앙을 내면에서부터 바라보고, 고치는 것을 주안으로 삼았습니다. 내년의 Part2 에서는 신앙을 증거하는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011년1월1일
천주의 모친 성모마리아 대축일